

(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5면)

음식물 감량기 지원 사업 일몰 철회해야



▲최상진 도시
건설위원장(삼전
동·잠실3동)은
식품접객업소
음식물류 폐기
물 감량기 구매
지원 사업의 문
제점을 지적하
고 적극적인 사

업 개선 및 재추진을 촉구했다.

최 위원장은 “2025년 기준 송파구 다량
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
은 7,058톤으로 하루 평균 19.3톤에 달한
다”며 “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
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
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”이라
고 밝혔다.

최 위원장에 따르면 당초 의회 예산 심
의 당시 감량기 구입비 지원 비율은 50%

였으나, 집행 과정에서 지원 비율이
25%(최대 250만 원)로 축소됐다. 여기에
250㎡ 미만 일반음식점 면적 제한과 5년
의 의무 사용 기간까지 추가되면서 지난
6월 공모 신청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던
것으로 확인됐다.

최 위원장은 “타 자치구의 경우 지원 비
율을 50~70%까지 높이고 최대 지원금도
600만 원으로 책정했으며, 의무 사용 기
간도 2년으로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 참여
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”며 “송파구는 참
여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사업을 설계해
놓고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일
몰시키려 한다”고 안일한 행정을 강력히
비판했다.

끝으로 최 위원장은 “소상공인 지원과
환경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
록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
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”며 발언을 마쳤다.